

다산포럼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남 연인인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시구(詩句)처럼 모란이 아직 피지 않아서 아니요, 신동엽의 ‘해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가난’이나 ‘배가 고파서 연인 없는 봄’ 때문도 아니다. 나는 지금 한 마리의 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새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작년, 지금보다 이른 봄날이었다. 그 날도 나는 이른 새벽, 나만이 다니는 등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때 내 앞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나타났다. 몸은 비둘기만 하고, 공작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작고 아름다운 새였다. 그 새는 도망가지도 않고, 마치 내가 내 가는 길을 안내하겠다는 듯이 한참을 인도하더니 종종히 숲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그 새와의 조우와 동행은 날마다 아니지만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주변에 농장이나 동물원 같은 곳이라곤 없는데 어디서 날마다 그 아름다운 자태

를 내게 보여주는 것일까. 이제는 내 쪽에서 그 날 그 새를 보지 못하면 괜히 허전하고 서운해지는 것이었다. 우리의 이러한 관계는 초겨울, 첫눈이 올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숲 속에서 쫓고 쫓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는 푸드득거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부신타더니, 젊은이 세 사람이 빈손으로 숲 속에서 나왔다. 그 새가 잡히지 않은 것이 내게는 다행스러웠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새를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그 새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금계(金鷄)라고 했다. 금계와의 아침 동행을 거듭하면서 내게 생각난 것은 젊은 날 감옥에서 듣고 본 ‘봉암새’의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었다.

그 때 나는 6·3사태와 관련하여 그 배후 조종 혐의로 독거수(獨居囚)가 되어 1년 가까이 감옥에서 보냈다. 감옥 안에서는 5년 전에 사형당한 조봉암(1898~1959)이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었다.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은 조봉암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그에게 국가 반란과 간첩의 혐의를 씌워 마침내 사법살인을 하기에 이른다. 조봉암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는 그의 답답한 죽임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봉암새에 관한 것이었다.

사형장에서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문자 조봉암은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다. 나는 이(승만)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하면서 입회목사에게 누가복음 23장 22절을 읽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빌라도)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따라서 내놓으리라 한 때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일기가 끝나자 눈을 감고 듣고 있던 조봉암은 일어나 교수대로 향했다.

조봉암을 죽인 이승만은 9개월 뒤 4·19의 분노와 함성에 쫓겨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고 조봉암은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의 재심 판결로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개월 가까이 서대문감옥에 갇혀있던 조봉암은 매일 먹던 밥을 남겨, 그것을 창틀 사이로 내민 손바닥에 퍼서, 새들이 날아와 손 안의 밥알을 쪼아먹게 했다고 한다. 그가 죽자, 때가 되면 그 새들이 조봉암이 살던 감방을 맴돌며 ‘봉암, 봉암’하고 울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봉암새’라

는 말이 나왔다.

사람에게 기심(機心)이 없으면 세가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다. 전설 같은 봉암새의 이야기는 결국 조봉암이 이미 망기(忘機)의 경지에 올라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금계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며 한 때는 “내게서 기심이 없어졌는가”하는 착각의 자유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찮은 세상일에도 분노와 증오를 참지 못하는 내가 어찌 언감생심 기심없는 사람이기를 꿈이나 꿀 수 있으랴.

다만 나는 금계와의 동행을 계속하면서 나의 망기지학만은 계속하고 싶었다. 금계는 내게 기심을 버리라고 깨우쳐주는 도반(道伴)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이다.

겨우내 산에 오르면서, 길에 쌓인 낙엽이 해져버린 것을 보고 금계가 산 속 어딘가에서 겨울을 나고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었다 흩날려도 아직 나의 금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겨울의 추위와 기아를 이겨내고 금계가 살아있거나 한지, 그리고 나의 망기지학은 여기서 멈추어야 하는지 조바심이 더해가고 있다. 금계가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社說

연구원 통합 합의, 이젠 상생발전 서둘러야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첫 과제로 추진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던 통합연구원 이전 부지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돼 난관을 넘긴 것이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연구원 이전 부지를 빛가람(나주) 공동혁신도시에 두기로 합의했다. 통합연구원의 기금은 두 연구원의 기존 기금 차이를 인정해 통합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후 기금 출연과 운영은 동등하게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의회는 이날 오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고 통합 조례안을 의결,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연구원 통합은 지난해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가 시도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14개의 제 가운데 첫 번째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앞으로 현안 의제들

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가 합의한 의제 중에는 2015 하계U대회 성공 개최 협력, 빛가람 공동 혁신도시 및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이 대부분이다. 이들 의제는 예산과 지역 특성상 각기 하기는 어렵고, 시도가 손을 잡아도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첫 해에 배부를 수 없을 시급성과 선수를 가려 차근차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하계U대회와 빛가람 공동혁신도시·무안공항 활성화 등은 서로 협조 속에 전라만 잘 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연구원 통합이라는 첫 성과를 이끌어 낸 만큼 다른 의제도 시도가 ‘한 뿌리’라는 상생 취지에 맞게 속도를 내야 한다. 통합연구원이 의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도가 역량을 결집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라는 것이다.

금호산업 오늘 분입찰 지역경제 우려 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명운이 걸린 금호산업 인수 분입찰이 오늘 오후 3시에 마감된다. 금호산업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데다 지역에 뿌리를 둔 회사 성격상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여기에 호반건설이라는 지역 출신의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제시 가격과 최종 인수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쏠려 있다.

인수가격은 애초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 급기야 1조 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적극적인 인수 의향을 보인 곳은 인수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제외한 호반건설과 MBK파트너스로 알려져 최소한 복수의 투자자가 입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회장이 투자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 금호산업은 박 회장 소유가 된다. 결과적으로 금호산업 입찰은 3000억~5000억 원까지 오른 상황에 누가 인수하더라도 출혈은 불가피하다. ‘승

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높은 낙찰가로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면 매각 주관사가 채권단에 요청해 제3자를 우선 매수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호반건설도 금호산업을 놓치게 되고, 금호산업도 더 이상 수주가 누가 될 것이냐에 쏠려 있다.

우리는 누차 강조했지만 지역 기업 간 출혈경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인수금액이 급상승해 결과적으로 채권단만 배를 불리게 되고, 그로 인한 부담은 지역 경제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무리한 인수 추진은 지역 자본의 과도한 역외 유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기업은 경제적 논리와 지역경제 차원에서 남은 한 나절 자신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금호그룹과 호반건설은 대응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며, 지역민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촌 특·특

보이지 않는 존재



김해솔 지스트(광주과기원)대학 3학년

대학생은 교수자 학생 집단을 규정짓는 이런저런 말을 듣기 마련이다. 보편적으로 요즘 대학생들이 들어봤을 법한 말, ‘예전 대학생보다 독서량이 부족하다’, ‘예전만큼 똑똑한 학생들이 잘 없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니는 지스트대학(GIST College·광주과학기술원)의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 특성상 듣게 되는 말, ‘미래의 과학자인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시나 소설 읽는 사람은 없죠?’ 같은 종류의 말을 요즘 자주 듣는다.

그런 말들은 학생 집단의 누군가를 너무 쉽게 지워버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 ‘여러분’이라고 손쉽게 묶어버

린 사람들 중 누군가는 분명 그 말에 규정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나만 해도 그렇다. 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다니지만 과학자가 아닌 다른 장래를 생각하고 있으며, 가끔은 시나 소설도 읽는다. 그 말들에 규정되지 않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별스럽지도 않은 세대 혹은 세상이고, 또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은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니 말이다.

설령, 전체 ‘경향성’을 따져보았을 때 그 말들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말이라고 해도, 규정하는 말들은 규정지어지는 사람의 자아 이미지에 명확한 틀을 제공하고, 그 틀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상상하도록 제한한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를 규정짓는 말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뱉어져야 하고, 혹은 아예 내뱉지 않는 편이 낫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속에 있는 교육공동체의 특이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학교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과학기술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 규정지어지는 것이 대학생 보편을 넘어 인간 보편의 경험이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다수의 집단을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을 이해하는 방식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권력구조는 소수의 책임자가 다수의 구성원을 이끌어가고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소수 책임자는 지시하고 발화하는 주체가 되고, 다수의 구성원은 청자이자 객체이다. 소수의 책임자가 다수의 집단을 파악하고 알맞은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소수의 책임자가 효율적으로 파악한 집단의 성격은 그 집단의 ‘객체’로서의 성격이다. 어떤 권력의 하부구조에 있는 청자, 객체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고, 그러므로 소수의 책임자가 이해하는 그 집단의 성격은 결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체 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즉 비(非)가시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금기만급이나 비가시화가 위험한 이유는, 나와 다른 존재를 인식조차 못하고 그 존재를 무시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시화는 ‘우리 기혼자’, ‘우리 중산층’, ‘우리 건강인’, ‘우리 한국인’, ‘우리 이성애자’ 등 타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잠시간 당혹스럽겠지만 될 더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그저 잊어버리고 무더진다.

누구나 말 한마디로 손쉽게 사람을 지워버릴 수 있다. 쉬운 말 한 마디가 누군가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의 말이 누군가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존재가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지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규정지어져 있는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과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다.

기고

지역경제의 효자 보리산업



정근택 영광부군수

최근 불철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봄꽃의 개화기가 예년에 비해 빨라져 진달래, 벚꽃, 개나리 등 봄꽃 하얀 노랑 꽃 물결이 앞 다투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처럼 화려한 봄꽃의 향연 속에서도 영광(靈光)의 들녘은 온통 푸르푸르한 보리밭으로 더욱 생기가 넘쳐난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고 얼음같이 차가운 동토(凍土)를 뚫고 나온 경이로운 몸짓이다.

서해 칠산바다와 마주하고 그에 견줄 만큼 넓게 펼쳐진 영광군의 보리밭은 그 면적이 2400ha로 전국의 16%, 전남의 54%를 점유하고 있다. 알곡보리, 정보리, 가공식용 등 보리산업으로 연간 250억 원

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생산유발효과는 1070억 원, 부가가치 523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3128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바야흐로 천대만년 보리가 웰빙 건강식품으로 거듭나며 효자상품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는 1948년 양곡매입법 제정 이후 60년 간 지속돼온 보리수매제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폐지했다. 보리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재고량의 증가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가격격과 공공매입 가격의 현격한 차액으로 더 이상 수매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전국의 보리재배면적은 48%까지 감소하게 됐다.

농가들로부터 재배를 기피하는 상황 속에서 영광군은 2010년 전국 최초로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받고, 가공·유통 시설 지구를 선정하여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부 농가들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으로서 보리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

신하고 독심 있게 밀어붙인 결정이었다.

또한 영광군은 2012년 정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찰보리 제과·제빵, 칼국수, 보리막걸리 등 각종 먹거리 체험의 제공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영광군이 전라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보리가공식품들을 종합 전시하여 관련 기업을 홍보하고 시시행사를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의 방향을 가능해 보는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 수매에서조차 외면 받던 보리를 블루오션산업으로 재탄생시켜 농가 소득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영광군의 사례가 천리향처럼 널리 전파되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제는 영광(靈光)하면 곧바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영광 지내들 용기들담공원에서 제4회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가 열린다. 보리 구워먹기, 보리피리 만들기 등 추억의 재현을 통해 아련한 기억들을 되살리고 친한 환경 보리를 이용한 보리 제과·제빵, 칼국수, 보리막걸리 등 각종 먹거리 체험의 제공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영광군이 전라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보리가공식품들을 종합 전시하여 관련 기업을 홍보하고 시시행사를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의 방향을 가능해 보는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 수매에서조차 외면 받던 보리를 블루오션산업으로 재탄생시켜 농가 소득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영광군의 사례가 천리향처럼 널리 전파되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제는 영광(靈光)하면 곧바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영광 지내들 용기들담공원에서 제4회 영광

無 等 鼓

120년 전인 1895년 1월 7~10일 장흥에서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격전이 벌어진다. ‘남도장군’, ‘장태장군’으로 불린 장흥 출신 이방언 장군이 지휘하는 동학농민혁명군 3만여 명과 관군·일본군 연합 토벌군이 석대들에서 맞붙었다. 석대들은 장흥읍성과 강진현, 자율재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였다. 당시는 1894년 10월 2차 봉기 후 서울로 진격하던 농민군 본진이 광주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해 후일을 기약하며 해산한데다 핵심 지도자도 20대 여장군 이소사(조이)와 소년장수 이 모두 잡힌 후였다.

하지만 화승총과 죽창을 가진 농민군은 석대들 전투에서 월등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규군의 스나이더(snider) 소총과 무라타(村田) 소총, 기관총, 포 등 신식 무기에 밀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분투를 삼켜야 했다.

이때 농민군은 몸이 부적을 붙이고 죽창이나 화승총을 들고 돌격했다. 반면 일본군 소총은 강선을 갖춘 현대식 총으로 최대 사거리가 1800~2000m였다. 이러한 전투장비 차이로 인해 농민군과 일본군의 화력은 250대 1이나

500대 1에 달했다고 한다. 갑오년에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했던 농민군의 꿈은 석대들에서 핏방으로 스러졌다.

지난 26일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전투현장인 장흥읍 남외리 ‘작은 석대’에 의미깊은 기념관이 들어섰다. 장흥군은 총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해 지상 1층(연면적 2800㎡) 규모의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개관했다.

기념관 내에는 이방언 장군을 비롯해 20대 여장군 이소사(조이)와 소년장수 이 모두 잡힌 후였다.

최동린, 소년 뱃사공 윤성도 등 잘 알려진 지지 않은 ‘영웅’들은 물론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세밀하게 보여준다. 120년전 수심만 무명(無名) 농민군이 뿌린 씨앗을 오늘을 직시하고 미래를 투신하는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죽음으로도 이 마지막 산화에 미칠 수 없음이어야! 여기 장흥 농민군의, 이름이여 동백꽃 피고 지고 만세를 떨치는 그 이름이여.” (그은) 장흥 농민군을 기리는 노래(중에서)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석대들 전투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